지역 소식통

김제시 만경영광아파트 제7호 금연아파트 지정

김제시 보건소(소장 김형희)는 7일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의거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에 따라 '만경영광아파트'를 '김제시 제7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최근 금연아파트는 금연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전환과 환경조성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공동주택의 경우 간접흡연의 피해에 따른 이웃간 분쟁예방과 흡연 에티켓변화 등 흡연자들의 금연에 대한 인식개선이 좋은 계기로 작용하여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방법은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의 동의와 해당 장소(복도, 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에 대한 지정 동의서, 해당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등을 보건소에 접수하고, 제출서류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 금연아파트로 지정 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추가지원

완주군이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관내 기업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추가지원'을 실시한다.

완주군은 지난 2월, 전년대비 2배 규모인 40억원 한도로 20개 기업까지 중소기업기금 융자지원을 공고했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관내 중소기업을 확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관내 공장 등록된 중소제조업체로, 기금현액 내에서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기간 제한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융자한도는 업체당 최고 2억원까지이며, 은행에서 경영안정자금을 차입할 때 대출이자의 최대 3%까지 보전해 2년 만기 후 일시상환하는 방식이다.

융자지원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은 완주군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 확인 후 신청서류를 완주군청 일자리경제과(290-2492)에 접수하면 된다.

/완주=이중복 기자

완주군-한국철도 MOU 체결

2021년 완주방문의 해 준비 ·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
코로나 19 극복위해 상호협력적 역할분담 적극 추진

완주군(군수 박성일)과 한국철도 전북본부(본부장 김광모)가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지역관광 활성화에 손을 맞잡았다.

7일 완주군은 군청 4층 전략회의실에서 박 군수와 김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완주군-한국철도 전북본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완주의 각종 지역자원과 철도를 연계한 완주관광 활성화와 철도관광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완주군은 이를 위해 지역관광과 연계한 철도 관광 상품 개발·운영 지원, 철도 관광상품 판매와 홍보 지원, 철도 관광상품 운영 시 시티투어버스 지원 등에 나서게 된다.

한국철도 전북본부는 완주 시티투어 연계상품 개발과 철도 관광상품 홍보 강화, 철도 관광상품 관광객 모객과 예약관리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현재 완주군은 코로나19 사태로 지역 관광산업이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가운데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지난달 24일에는 용산역(역장 양광렬)과 철도관광 활성화 업무협약을 맺은데 이어 이어 이번에는 전북본부와 협약을 추진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지역관광이 초유의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어 이번 업무협약이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광모 한국철도 본부장은 "앞으로 한국철도를 통해 완주의 보물 같은 관광자원을 마케팅해 '대한민국 대표 철도관광지'로 발돋움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1년 완주방문의 해'를 준비 중인 완주군은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급격히 위축된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유관기관들과 단계적으로 협약을 체결하는 등 활성화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완주=이중복 기자

완주군, "적극행정으로 국민 가려운 곳 긁는다"

3대 추진전략 바탕으로 한 11개 핵심과제 수립 본격 추진

완주군이 적극행정을 장려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추진해 군민 행복 구현을 실현한다.

완주군은 '군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실현'을 비전으로 하는 '2020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해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실행계획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적극행정 실행기반 강화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적극행정 문화 조성 및 확산 등 3대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한 11개 세부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완주군은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부서별 역할 부여 및 협조체계를 구축하해 추진기반을 강화하고,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활성화해 인허가 규제 등으로 군민의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을 경우 의사결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적극행정 면책제도,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등 기존 제도 또한 내실화 및 확대 운영을 통해 공직자가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적극행정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공무원을 연2회 선발·보상하고, 사례를 대내외적으로 확산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적극행정에 참여하는 공직문화 정착을 유도할 예정이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어느 때보다 공직자의 적극행정을 통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기다"며 "절차나 규정에 얽매여 문제 해결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공직문화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중복 기자

김제시 농업기술센터, 월간 주요업무 · 신속집행 점검회의 개최

김제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미란)는 7일 소장 주재로 5개 부서 과장, 25개 담당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업인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주요사업 추진계획과 재정의 신속한 집행을 위한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지난 3월에 이어 기술센터 5개 과의 4월 추진 예정인 주요사업의 추진계획, 쟁점사항 등을 점검하고, 2020년도 상반기 신속집행의 목표 달성을 위한 집행계획을 보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주요업무 보고는 중점 추진업무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위주로 보고하고 부서별 추진상황과 집행계획, 부진사업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대책에 대하여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의 상반기 신속집행 실적을 점검하여, 대상 사업 총 1,151억원의 60%인 690억 원을 상반기 목표액으로 설정하고 신속한 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와 하반기 예산 집중집행 관행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성덕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조혜영 는 7일 사랑의 밑반찬을 마련해 관내 남성 독거 어르신과 저소득 취약 계층 70세대에게 전달했다.

정성스런 사랑의 밑반찬 나눔

성덕면 주민자치위원회, 코로나19 극복위해 어르신께 반찬 봉사

김제시 성덕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조혜영)는 7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랑의 밑반찬을 마련해 관내 남성 독거 어르신과 저소득 취약 계층 70세대에게 전달해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만들었다.

이번 사랑의 밑반찬 봉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고령의 어르신 및 소외계층의 건강이 염려되는 가운데, 주민자치위원들이 밑반찬 배달 봉사활동을 펼쳐 독거 어르신들의 건강을 챙기자는 의견을 모아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조혜영 위원장을 비롯 최소 위원들만 모여 어르신들의 입맛을 돋우고 맛있는 잔멸치조림, 젓갈, 직접 농사 지은 콩으로 만든 콩조림 등 3종류의 밑반찬을 재료 구입부터 정성껏 손수 요리하여 관내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가가호호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면서 직접 전달하게 된 것이다.

이날 조혜영 성덕면 주민자치위원장은 '정성껏 준비한 밑반찬을 어려운 이웃과 나눌 수 있어 너무나도 기쁘다, 앞으로도 지역민과 함께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강기수 성덕면장은 '각자의 생업에 바쁘셨을 위원님들이 밑반찬 봉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 드리며, 앞으로 주민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성덕면을 만들기 위해 공직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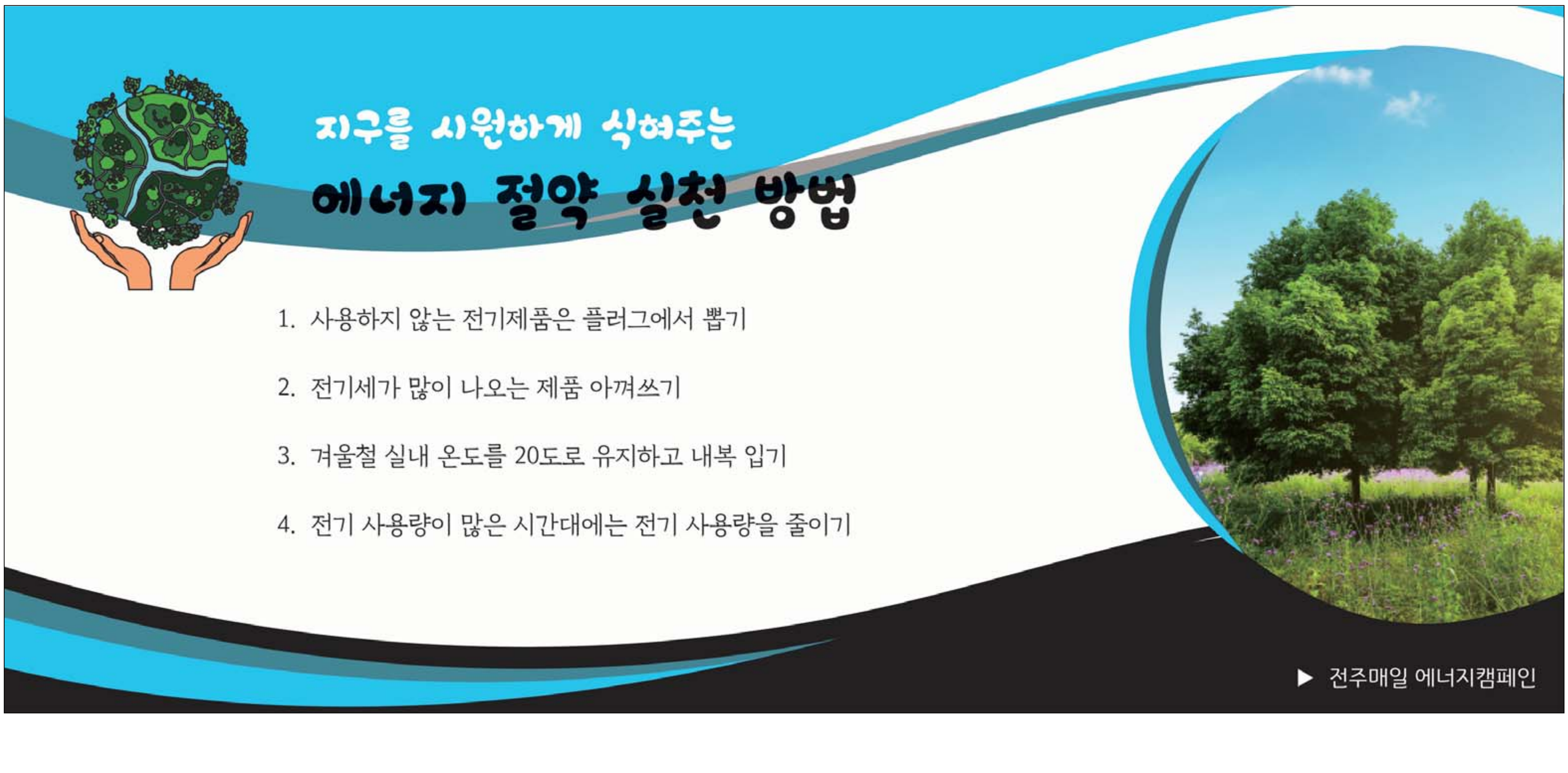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지평선 추억의 보리밭 축제' 취소 결정

김제시 진봉면 지역발전협의회(회장 임영택)에서는 코로나 19 여파로 5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개최 예정이었던 '제12회 진봉면민의 날 및 2020 지평선 추억의 보리밭 축제'를 취소했다.

진봉면 지역발전협의회에서는 코로나 19의 국내 및 전세계적인 확산으로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고려해 4월 6일 운영위원 회의를 열고, 축제 취소 결정을 밝혔다.

진봉면 지역발전협의회 위원장은 "지난달 22일부터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정하고 실천해왔지만 확진자 수가 쉽게 줄어들지 않고 2주간 연장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는 만큼, 그에 발맞추어 불가피하게 면민의 날 및 보리밭축제 취소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용현 진봉면장은" 진봉면민의 날과 2020년 지평선 보리밭축제가 진봉의 대표 축제인 만큼 취소하게 돼 매우 아쉽지만, 모두의 안전을 위한 결정인 만큼 코로나 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모든 역량을 동원해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